日, '온라인 승려 클리닉' 화제

포교활동, 기도 없이 상담에만 응해

2020년 9월에 상담 시작해

스님 8명서 32명으로 증가

20%가 장기고객으로 연결

박영빈 객원기자



원하는 스님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승려 클리닉'.

사진출처=온라인 승려 클리닉 공식 사이트

종교, 성별, 상담주제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스님을 선택해 고민을 상담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대외활동이 줄어들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우울현상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담이 각광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스님들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이어주는 사이트들이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7월 2일, 일본의 '데일리 신쵸'는 온라인으로 스님들에게 상담하는 사이트, '온라인 승려 클리닉'에 대해 보도했다.

사이트의 첫 화면에는 "그래, 툭 터놓자"라는 선전문구와 함께 스님들의 온화한 얼굴들이 늘어서 있다. '온라인 승려 클리닉'은 일본 전국 각 종파의 다양한 스님들에게 고민이나 우울감 등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블루' 현상이 증가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이트를 개설한 주식회사 '와쿠 프로젝트'의 타시로 시노무 이사는 "본사는 원래 전국 사찰들의 템플스테이를 소개하고 예약을 받던 포털 사이트 '테라하쿠'를 운영해 왔다. 그 일환으로 스님들과 대중들을 연결하는 사이트를 개설 하게 된 것이 시작"이라고 운영계기를 전했다. 또 운영에 대해서는, "2020년 9월에 처음 사이트를 개설했다. 당시엔 사찰이나 불교색을 드러내면 대중들의 접근성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누구나 가볍게 들리고 맘 편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곳이란 뜻에서 '온라인 스님 바(bar)'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차 사이트가 입소문을 타고, 코로나의 확산 등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고 싶다는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좀 더 전문성을 넣어 '온라인 승려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했다.

리뉴얼 후 상담에 대응하는 스님은 8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증가됐다. 온라인으로라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스님들의 자발적인 참가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스님들도 대거 포섭됐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트랜스젠더 스님, 미혼모로 육아를 하고 있는 스님, 현역교사, 임상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스님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적인 상담 사이트들과 동일하다. 스님들의 사진과 자기소개 등을 보고, 또 상담후기 등을 참조해 스님을 선택한다. 이후 일시를 확인하여 상담 당일 이메일로 발송되는 접속주소를 통해 스님과 이야기 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30분을 기본으로 기본요금 3300엔(한화 34000원)으로 10분씩 연장이 가능하다.

스님들이 상담에 응하지만 포교나 기도 등의 신행활동을 권유하지는 않는다. 타시로 이사는 "스님들께서 상담에 응해주시는 것은 불교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주시는 것이고, 실제 상담내용에 명상이나 마음챙김등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스님에게 상담을 하고플 뿐, 불교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분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상담사 스님들께서도 이 점을 이해하여 직접적인 권유 없이 상담에 응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스님들도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담사로 등록된 오다 코게츠 스님은 "지금 당장 상담하고파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예약과 온라인 대면이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도 상당하다. 이메일이나 채팅을 통한 상담창구도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현재 '온라인 승려 클리닉' 측은 스님들의 의견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합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학자 꿈꾸던 미국인, 승려가 되다

매일신문, 승려이자 사회과학자 콜린 가비 스님 소개



일본 전국 일간매체 매일신문(每日新聞)은 10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불교 승려가 된 미국의 사회과학자 콜린 가비(Colin Garvey · 36 · 사진)를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7월 2일 보도를 통해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의 콜린은 일본 불교에 귀의했을 때 마음을 비우고 한 가지에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는 선(Zen) 명상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며 "그런 그는 인공지능(AI)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첨단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린은 "유년 시절부터 과학자를 꿈꾸며 종교 · 철학에 대해선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무언가를 믿고 연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그가 변화한 것은 대학 시절인 23살 때 일본을 방문하면서부터다. 그는 미국 뉴욕주 바사대학(Vassar College)에서 일본어를 전공했고, 졸업 후 일본 니가타(Niigata)현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게 됐다. 일본에서 2년간 지내면서 '나는 왜 일본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를 생각하던 그는 우연히 일본 조동종 사찰인 사이묘지(Saimyo-ji) 사찰의 주지 사토 두순(Doushun Sato · 52) 스님의 '좌선 명상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당시 "명상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훈련"이라는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불교 명상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콜린 스님의 설명이다. 이후 콜린은 27살 되던 해, 사토 두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스승님은 그를 살게 한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겼다"며 "그런 스승님을 보면서 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그는 미국 뉴욕의 랜셀러(Rensselaer) 카운티 폴리텍 대학에서 과학기술사회학을 전공, 7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가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승려가 됐고, 소엔류 콜린 가비(Soen Shunryu Colin Garvey)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창업 1100년, 最古불교용품점 눈길

전통기술 보존 사명 이어가

금강저 등 전문용품 취급

세대 전승으로 맥 이어가



1100년의 역사속에서 불교용품을 만들어온 타나카 이가 불구점의 금강저.

사진출처=니혼 게이자이 신문

삼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전통이 살아있는 일본. 1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교용품을 제조, 판매해온 가게가 주목받고 있다. 6월 30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교토의 노포(老舗), '타나카이가 불구점(田中伊雅 佛具店)'을 소개했다.

일본에서 몇 백년을 이어오는 노포와 장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여관이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이 주가 되는 제조업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토에 본사를 둔 이가불구점은 불교용품이라는 특수 제조업으로 1000년이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이가불구점은 대중적인 불교용품이 아닌 금강저나 요령, 다기 등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교용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경제대학의 고토 토시오 교수는 "여관이나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은 자연자원의 보호나 새로운 메뉴의 개발 등으로 비교적 그 세를 유지하기 쉽다. 그러나 제조업은 그 기술의 전승과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불교용품을 납품하는 사찰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업으로부터 70대째 사장을 맡고 있는 타나카 마사카즈는 "선대인 아버지와 선선대 사장인 할아버지의 구전에 따르면 교토의 고찰인 닌나지(仁和寺)의 앞에서 주물로 불구를 제작했다고만 전한다"며 역사를 설명했다.

여러차례의 화재와 2차대전의 피난 등으로 명확한 역사가 남아 있지 않은 탓이다. 타나카 사장은 "옛날엔 주물장을 장인으로는 인식해도, 예술가로는 인정하지 않았기에 불구에 상호나 이름을 새길 수 없었다"며 명확한 증거들이 적은 것도 아쉬워 했다.

그러나 일본의 불교공예를 연구하는 시즈오카 문화예술 대학의 소네 슈이치 교수는 "최소한 350년 전 중세의 여러 기록에 타나카 이가 불구점의 이름이 보인다. 특히 왕실의 비호를 받던 닌나지의 전속 납품은 물론 먼 지역의 주문을 받아 납품한 사례도 보인다"며 불구제작의 오랜 역사를 확인했다.

사찰용 불교용품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이곳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대중의 요구나 경제상황에 따라 재가용 불교용품이나, 제조장비를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 확장, 변경하여 이어오고 있다. 다른 기업들처럼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타나카 사장은 "나 역시 오랫동안 의심하고 되물었다. 그러나 결국엔 불구를 제작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소피아대, 불교학 석사 과정 최초 개설

한국어 등 불교 문화권 언어에 대한 연구 등 강좌 포함

불가리아의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소피아대학교가 오는 2021/22 겨울학기부터 불교학 석사 과정을 최초 개설할 것이라고 6월 30일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불가리아 최초로 소피아대학교가 불교의 문학 · 문화유산 · 철학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서구로의 발전 과정 등 포괄적인 탐구 과정을 개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피아대학의 고전 및 현대철학 학부에 개설되는 해당 프로그램에는 동양 불교 문화권의 언어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해당 매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등에 대한 능력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빨리어 · 산스크리트어 등 고대 경전 언어의 분석 · 번역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불교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시아를 넘어 서양까지, 유례없는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명문 대학들의 학부와 대학원들이 불교에 대한 지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고도 부연했다.

강사진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의 불교 학술 기관 및 전통 불교 센터에서 고전 불교 언어 및 불교 전통을 연구한 유능한 불교 학자들로 구성됐다. 학술 프로그램은 전담 강사진의 강의뿐만 아니라 초청 연사와 국제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 등도 포함된다. 세미나 등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된다. 이 과정은 795시간, 90학점으로 구성된다.소피아대학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자 최고 명문대로, 1888년에 역사 · 철학과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현재 24000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한국학과도 개설돼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시한부 말기암 신속 소멸되는 의료기기임상실험 경제적 도움주실 분

허리·무릎·목·엉치·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여러 의료기기



부항 여러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일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 골반 ·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엔 암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 세분의 좋은 사례담

사례1 > 식도암과 간암 환자분 홍천에 사시는 65세 남성 5월 12일 삼성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으시고 의료기 체험 하러 오셨습니다. 체험해보시고 몸이 편하기는 하나 어떻게 암치료가 되겠는지 못 믿겠다며 의료기 값 중 절반을 주고 다음에 확실히 좋아지면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처음 편하게 잠을 잤고 몸이 천근만근하여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거뜬하게 일어났다며 믿음이 가신다며 다시 오셔서 의료기를 사 가셨습니다.

사례2 > 남양주시 사는 60세 여성은 2019년 1월 폐암 말기진단을 받고 "선생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폐에 물이 7리터 이상 차서 병원에 입원해서 100일간 물만 빼고 퇴원한 후 우리가 만든 '척추근육강화기 (의료기)를 꾸준히 활용하여 현재 병원 의사의 "매우 안정적이다" 라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3 > 2019년 10월 50대 여성이 "병원진찰 결과 간에 암이 세개 발견되고 대장암은 너무 커버려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저희가 특허 발명한 위 의료기를 구입, 한달간 사용 후 간암은 완전히 소멸되고 두달쯤 사용하던 중 어느날 항문으로 피고름이 쏟아져서 무서운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씀드리니 "검사 결과 암이 죽어서 거의 다 피고름으로 쏟아졌다"며 이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하여 수술 후 완치됐습니다. 처음 저희 의료기를 불신하던 그분의 형제자매 6남매 모두가 의료기를 구입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전화하십니다.

의료기 개발자인 저는 "모든 암질환은 대부분 척추변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척추근육강화기(의료기)는 변위된 척추를 원래 척추로 교정해주는 의료기기입니다. 척추가 좋아지면 항암제부작용도 말기암 통증도 해소됩니다.
※ 질병 퇴치연구를 할수 있도록 도움주실 분 찾습니다.

✲ 소자본 지점모집 ✲ NAVER 척추근육강화기 ▼ 검색 예약 010-6575-7866